

### 병원과 교도소 누비며 포교하는 비구니 스님들

## 병상을 법당 삼아 병마극복 도와요



스님들은 중생이 아프고 힘들 때, 이들을 찾아가 보살피는 것은 수행자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입을 모은다. 병원은 부처님의 동체 자비사상을 실천하는 '수행처'라는 것이다. 국립경찰병원 해광(서울 잠나선원장)·무관 스님, 사제지간인 이들 스님은 13년째 병실을 지키고 있다. 매일 500개 병상을 돌며 환자들을 위로한다. 스승은 환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제자는 쾌유 기원 기도를 올린다. 병원직원봉사회도 이끌어 일과 수행의 일치를 언제나 강조해 지금은 모두들 열혈 직장 불자들이 됐다. 국립경찰병원은 특성상 다친 전경과 의경

들이 많이 입원한다. 따라서 스님들은 전·의경 포교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전·의경 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책임질 '씨앗'이라는 것이 이들 스님들의 생각이다. 때문에 신세대 유행음악 CD 등을 입원한 전·의경들 병상 머리맡에 놓아주곤 한다. 아예 병원 근처로 이사 온 '자취생 스님'도 있다. 서울보훈병원 지문 스님, 따로 짚이 없애 병원 법당이 집이자 수행처인 셈이다. 새벽 4시면 출근(약하고, 늦은 저녁에야 강동구 등촌동 자취방으로 돌아온다. 이거기를 11년째다. 스님은 간병인봉사회인 '보은회'도 만들어 환자들과 함께 해왔다.



스승과 제자는 병원포교에 열력을 세웠다. 해광 스님(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과 무관 스님. 벌써 13년째 국립경찰병원에서 환자들을 보살피고 있다.

병원 포교에 열력을 세운 스님들의 역량은 자원봉사조직 운영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서울 경희의료원 해도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4년 전 불교호스피스 '불교비아라'를 결성해 열혈공양과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업무를 돕도록 하고 있다. 이 병원 자원봉사자가 할 일을 불교비아라가 90% 이상을 소화한다. 동국대 경주·경주한방·포항병원 3곳의 종립병원을 맡고 있는 무구 스님(동대 경주병원 약사전 주지)도 자원봉사활동 전문가다. 지난 2003년 동국학원 재단에서 파견 나온 스님은 특히 지역 사찰의 신도회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병원 봉사

는 재가불자가 해야 할 '또 하나의 수행'이라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서울아산병원 지훈 스님(암사동 정향사 주지)의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15년 전 병원 개원과 함께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님은 병원에서 '슈퍼유면'으로 통한다. 환자 상담 및 위문, 불교행사 주관, 임종봉사, 뇌사판정 위원회 활동 등 잠시라도 쉴 틈이 없다. 자다가도 병원에서 호출이 오면 뛰어나간다. 서울대학병원 은진 스님(경량리 정량사)은 16년 넘게 병원에서 살다보니 의욕이 지니 웬만한 의사 수준 뺨친다. 환자들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 지 알 수 있을 정도다. 무엇보다도 스님은 병을 이길수 있도록 환자들의 마음이 편안해 지도록 의지를 북돋아주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 재소자들 달린 마음 찬불가 부르며 '활짝'

흔히 교도소, 구치소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국가로부터 그 죄값을 치르는 곳을 교정기관이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기관은 모두 44곳. 이들 교정기관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교정행정을 위해 민간인 교정위원을 두고 있다. 교정위원은 크게 종교분과위원회와 교화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스님들은 대부분 종교분과위원회 소속으로 교정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 교정위원은 모두 463명. 이 가운데 비구니 스님은 모두 44명으로 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으나 활동면에서는 왕성한 편이다.

교정위원의 주된 일은 수계법회, 초파일 등 불교 종교행사를 주관 하는 것. 법회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며 재소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교정 활동도 늘고 있다. 재소자와 신도와의 자매 결연을 통한 교화를 비롯해 가족 문제, 출소 후 취업 문제 등을 상담해 주는 역할까지 다양해졌다. 특히 여자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비구니 스님들의 상담이나 교정 활동은 상당하다. 교정기관 공무원들은 비구니 스님의 교정활동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교정기관에서 왕성하게 교정,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비구니 스님으로는 법은·정진·재신 스님 등이다. 법은 스님은 80년 인천소년교도소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이후 20년 이상 교정기관에서 재소자 교화활동을 펼쳤고 지난해에는 그 공로로 법무부에서 수여하는 상인 교정대상 자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여자 재소자가 아기를 업고 있는 모습을 보고 교정 활동을 시작했다는 정진 스님은 찬불가를 통해 재소자 교화에 매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해 마음의 위안을 주는 방법으로 법문 보다는 노래가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서다. 재소자와 함께 피아노 반주로 찬불가, 동요 등을 부르며 잠시나마 웃게 되고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는 것 같으며 1984년부터 한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찬불가 법회를 병행하고 있다. 70이 넘는 노구를 이끌고 매일 교정기관을 위문하는 재신스님. 1969년 교정 공무원이었던



재신 스님, 법은 스님, 정진 스님

던 신도와의 인연으로 춘천 교도소를 시작으로 전국의 교정기관을 찾아다니며 왕성한 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걸어도닐 수 있을 때까지 재소자 교화를 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스님은 지난 2월 11일에도 신촌 봉원사의 후원으로 맥, 과자, 음료수 등을 재소자에게 전달했다. 그 외에도 덕심, 법조, 해광, 지원, 혜숙, 중휘, 정보, 천불, 명신, 법기, 혜제, 정현, 은혜, 도일, 도승 스님 등도 드러내지 않은 가운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묘희, 일호 스님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수십년간 교정 활동을 해왔다.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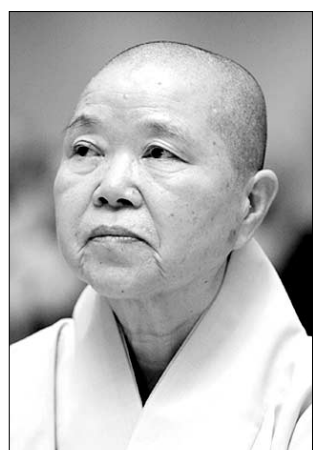
### 한국의 비구니 스님 <5> 명성 스님

## 비구니 수행·교육체계 확립

"올해는 제8차 세계여성불교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일화(世界一華) 정신에 입각해 국경을 초월, 전세계 불교도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하겠습니다."

청도 운문사 회주이자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인 명성스님. 2월 9일 비구니회관에서 만난 스님은 올해 비구니회의 최대 현안인 세계여성불교대회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70이 훌쩍 넘은 노장이지만 아직도 선재동자와 같은 천진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명성 스님에게서 평생을 비구니 수행과 교육을 위해 매진해 온 자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1931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명성 스님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불현듯 떠오른 자아에 대한 근본 물음을 풀기위해 1955년 해인



을 받기 위해 동국대에 입학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불교학자였던 김동화 박사를 지도교수로 유식을 전공, 석·박사를 마친 스님은 다시 신종강원으로 돌아왔다. 명성 스님은 1987년 국내 최대 비구니 강의를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인 운문승가대학원을 개원하며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체계를 확립했다. 비구니 스님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운문사를 현재 40여명의 전각을 갖춘 대가람으로 변모시켰다. 이 모두가 후학에 대한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 운문승가대학 열어

### 후학 양성에 매진

사에서 선행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당시 선행 스님의 은사이신 분공 스님은 손주 상좌로 들어온 명성스님을 보고 '훗날 대강백이 될 것'을 예언했다고 한다. 필연이었을까? 1967년 해인사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한 명성 스님은 당대의 대강백 관음, 경봉, 운허, 만우, 탄허 스님 문하에서 공부했고 마침내 성승 스님 회상에서 전각을 받았다.

"성승 스님으로부터 전각을 받을 때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느날 노장님께서 불러 갔더니 자신이 깔고 앉아 있던 좌복을 내어주시면서 앉으라고 하더군요. 그러하면서 '오늘부터 전강한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파격적인 전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각을 받은 이후 선암사 강원에서 3년을 강의한 명성 스님은 종단 교육의 현실을 직감하고 교육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래서 스님은 서울 청릉사 강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대식 교육

수십년 운문사에 주석하며 비구니 수행·교육 체계를 확립해 온 명성 스님은 최근 7천여 비구니 스님들을 위해 더욱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 능력이 부족하며 극구 사양했지만 비구니 원로 스님들이 몇 번을 찾아와 회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해 지난해 10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장에 취임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올해 비구니회의 활성화에 대해 비구니회관을 교육진흥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승가대학 강사, 선원 수좌 등의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매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을 위해 다도, 명상, 꽃꽂이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 강화를 위해 전국 비구니 스님 단 교육의 현실을 직감하고 교육체계를 확립하겠다고 서원했다. 그래서 스님은 서울 청릉사 강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현대식 교육 김두식 기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쉽게 포교하며,  
21세기의 풍요로운 삶을 생활불교의 실천수행으로.....

### 금강불교대학 2004년도 신입생 모집

(사이버 동영상강좌 = <http://www.kkbuddha.net>)

- 모집과정**  
불교기초과정  
불교 전문 과정-(포교사)  
장례지도사 과정-(장례지도사)  
공통 : (컴퓨터기초, 기초의식, 경전)
- 모집방법**  
인터넷으로 원서접수 및 등록
- 개강**  
2004년 2월 7일
- 입학식**  
2004년 3월 6일(토) 오후 1시

● 특전(자격) : 포교사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장례지도사 (한국장례업협회)

문의 : 금강불교대학 ([www.kkbuddha.net](http://www.kkbuddha.net))  
경남창원시동정동708-48번지 (641-490) 전화:(055)253-0108 / 전송:(055)296-6200

##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법사의 삶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 출강통신 법사 교육생 모집

12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법위를 갖추시고 불교활동을 지망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제13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 사찰·포교원 개원 및 등록시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시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초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① 원서 교부 및 접수: 2004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①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대학 교무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1번지 (견지빌딩 3층)  
인터넷 <http://pubsa.buddhism.org> 팩스 737-5305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